

사설

가야산서 골프 안된다

골프는 작은 키의 초원이 발달한 곳에서 막대기 맞게 꽃아놓고 즐기던 단순한 놀이였다.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처럼 초원이 넓게 펼쳐진 곳에서는 일부러 잔디를 심을 필요도 없고, 독한 농약을 하루 걸러 칠 필요도 없다. 놀이란 그렇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며 물이 귀한 곳에서 골프는 적절치 않은 놀이이다.

해인사 인근에 또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물의를 빚고 있다. (주)동아스포츠가 가야산 인근의 임야와 전답 88만㎡ 부지에 27층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서 가야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해인사로부터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그동안 문제가 된 가야산의 골프장 부지의 더욱 지척에 위치해 있다. 이에 지방의 환경단체와 해인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네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는 모양이다. 가야산은 일제강점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으며, 경북지사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놓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불교계, 그리고 1백만이 넘는 서명에서 확인된 전국민적 저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이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토지매입과 사업추진에 돈을 들이지 않고 일찍 발을 뺄 수 있었을 것이다. 동아스포츠도 이 사례를 거울 삼아 동일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가야산의 골프장을 전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무분별한 관정이 식수원을 고갈시킬 것이고, 맹독성의 농약은 땅과 하천은 물론, 바람을 타고 나무와 사람을 위협하며, 세계의 문화유산인 장경관을 거덜낼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골

프장 사업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변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다. 인간세(人間世)는 법 이전의 생명에 대한 고려, 이웃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유지된다. 법은 국부적 대응이며, 또 변화하는 상황을 유연하게 따라잡지 못한다. 골프장을 둘러싼 정부부처간의 이견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생명의 전체성에 대한 사회적 자각과 합의는 최근의 것이다.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증가한 엔트로피, 그리고 가속화된 환경의 파괴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자각은 아직 법의 체계 속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직도 개발과 진보, 이윤과 발전이라는 낡은 근대적 인식과 관행이다.

무지한 증생들은 환경을 먼 나라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흡사 우물 속에 매달린 사람이 한 방울의 꿀에 취해, 머리 위에서 쥐가 자신의 생명줄을 쏘고 있는 것을 모르듯이, 가야산이 죽고, 장경각이 황폐해지면 골프장 건설자나 우리나라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생명의 이치는 개체와 개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돌 하나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없으면 너도 죽는 것이 연기법(緣起法)의 실상이다.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여기서 환경의 중요성과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 경제적 부에 자만하지 않고 문화와 환경을 생각하며 인류의 미래를 선도해 가는 책임과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재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계의 문화유산을 대하는 의식수준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까지 성글고 막되먹을 수가 있을까 싶다. 단편 인식을 계몽하는 한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는데 모두 힘을 합쳐야겠다.

열린마당

한국불교 해외교류

“인권·환경등 인류현안 공동대처”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국제불교교류는 크게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세계불교승가회(WBSC),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등 공식기구를 통한 교류와 개별 국가간의 행사나 학술세미나 등 정기·부정기적 교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교류는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불교 발전의 공동분모를 찾고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20여년간 지속돼온 한·일불교교류를 포함해 인도, 스리랑카, 몽고, 태국, 미얀마 등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불교 속에서의 우리불교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불교와 문화를 소상히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들 나라들의 불교는 물론 사회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단행했던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불교교류를 통해 2천년 불교역사를 일깨우고 있고, 불교성지인 네팔 불비나 개발도 불교국가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교가 21세기를 탄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불교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세계적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 내야 한다. 또 인권, 전쟁, 환경문제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한 불교의 통일된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정신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일깨워야 한다. 이는 오직 세계 불교국가들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외불교교류는 그것이 국가적 차원이든, 사찰 단위 차원이든간에 미래사회를 이끌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불심나누며 경제교류·정치협조

류진수 <불교부산방송 사장·인도 명예영사>

한국불교계의 해외교류에 대한 관심은 보다 폭넓은 전법시대를 열 뿐만 아니라 불교교류를 통해 정치·경제·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최근 대승불교권 이외에도 남방불교계까지 폭넓은 교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러한 해외교류는 단순히 양국의 종교간 교류뿐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나 협조, 정치적인 이질감의 극복 등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례로 스리랑카와의 수교에 양국 불교계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은 외교사에 남을 일로 기록된다. 이처럼 종교간의 교류에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면 보다 내실있는 교류를 확보한 셈이다.

인도와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현재 부산에도 인도명예영사관이 설치된 상태이며 이로써 부산

경남의 불자들은 물론 기업인들의 인도비자 발급 업무가 한결 수월해졌다. 인도측은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족, 피혁, 섬유 등을 제조하는 한국 기술과 인도의 인적자원을 합작하는 교류를 추진중이다. 종교적인 교류에서 경제적인 투자와 협조를 도출해낸 것이다. 이처럼 불교를 통한 국제교류는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나 정치적 차이마저 녹여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교적인 교류에 정치·경제·외교적인 교류가 우선되어야 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면에만 집중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간의 교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능해야 하며 그렇게 순수한 교류에 바탕을 두고 정치·경제·외교적인 교류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보다 내실 우선돼야”

남지심 <우리는선우 공동대표>

최근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국가와의 불교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교류는 알맹이 없는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시점에서 국제교류는 눈속임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먼저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관련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교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방향성과 효과성을 따져 일을 분담·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한건주의나 성과주의 보다는 내실을 다질 때이다.

첫째, 경제수준이 낮은 불교국가의 경우 스님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톨포트의 킬링필드로 대부분의 스님이 학살되

었다. 망명에서 돌아온 스님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이라 강사로 부적합하다. 또 몽골의 경우 불교미술대학이 있지만 교재가 없다. 캄보디아 오사를 사원, 미얀마의 사사나승가대학 등 대표적인 승가교육기관의 교육비를 지원해 젊은 강사 스님들을 배출시키고, 교육교재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캄보디아의 프놈펜대학, 몽골의 울란바트 라대학 등 불교국가의 국립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젊은 불자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각 나라의 미래 지도자를 키워 우리나라가 겪은 환경·사회문제 등 산업화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불교국가의 고아원을 지원하고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빈민들기에도 나서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전통불교국가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세계화시대를 실감하듯 한국불교의 국제교류 활동이 크게 늘었다. 최근 조계종이 캄보디아와 공식교류를 시작한 한편 국제불교 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국제불교교류 현황과 과제, 방향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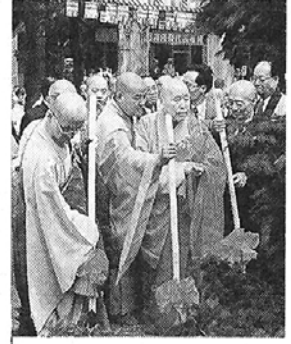
해외교류 현황

‘세계는 한가족’ ‘전 인류는 일불제자(一佛弟子)’라는 가치가 4일 조계종과 캄보디아 불교계간의 공식교류가 처음 이뤄지면서 환기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국제교류는 1966년 송산스님(화계사 조실)이 일본 도쿄에 흥법원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앞서 1945년 미얀마 수상 우누가 개인원 명상센터에 한국승려가 함께 수행하기도 하고, 50년대 말 서경보스님이 유학하는 등 스님들의 개별적인 교류는 훨씬 이전에 이뤄졌다.

교류는 해외교류 공식기구로 세계불교승가회(WBSC),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있다. 그외에

WFB등 교류단체 20여곳 조계종 20여국서 3백여스님 전법 단일장구 부재... 일부 나라 편중



중에서 열린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회의에서 각국 스님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등 8곳에 지부를 설치해 현지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등 한국불교의 세계화 및 국제포교 일선에 서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제교류는 단일장구 부재에 따른 대표성의 상실, 중국·일본에 치중된 교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운영면에서도 식사하고 관광하는 식의 상호방문 차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성과 국가적 지위 선양을 위한 단일장구의 마련, 원만한 의사소통 등을 통한 실무자들의 자질함양 등은 한국불교가 세계불교로 뻗어나가기 위한 과제로 남는다.

또한 서양에 불교 있는 ‘불교법’에 한국불교가 해야 할 역할도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 주요 국제불교교류 단체

단체명	창립	전화
세계불교승가회(WBSC)	1954	
세계불교도우의회(WFB)	1950	02)741-0495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1977	02)720-1788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1995	02)732-4885
한·스리랑카협회	1979	02)275-0184
한·스승불교문화의교류회	1993	02)914-0879
승가대-일본불교대학	1993	02)925-5507
삼천중-중국 백마사	1991	02)425-0108
대한법화종-일본 입정교성회	1986	02)764-2678
한·태 불교협회	1993	04)583-6613
우리는선우-미얀마·캄보디아 지원사업	1994	02)278-8672
세계불교동수회 한국지회	1993	02)733-4445
천태종-일본천태종, 중국천태종	1995	02)233-6210
한국TIS-인도 구호사업	1993	02)581-0581
경북련-인도·네팔 구호사업	1996	02)765-5448

현대만평

737-8881

현대만평



도!!!

생활 속의 불교 (127)

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빛깔

‘한생각이면 가난도 면할 수 있고, 한생각이면 질병도 낫게 할 수 있고, 한생각이면 남들을 유익하게 거두어 줄 수도 있다. 마음은 채가 없어서 우주를 싸고도 남는 것이니 돌아서 도리를 안다면 무엇이든 한이름에 안을 수 있다. 내 상을 내세우지 말고 그이름으로 무주상으로, 예를 든다면 얽매인 데가 없는 진진한 마음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한생각을 낸다면 그대로 법이 되고 그대로 약이 된다. 에너지가 같이 돌아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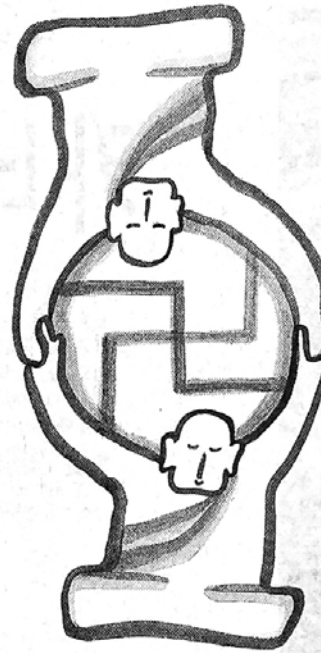
한생각 활발하게 돌리면 지진이 비로 서서 내 앞에 사랑도 오고 행복도 찾아온다. 한생각 움직이면 고통이 따를 뿐이다. 내 육신도 마음을 따라서 건강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한다. 한생각이 부자이면 일체가 부자이고 한생각이 가난하면 일체가 가난하다.’

누구나 한순간에 생각 한번 잘못해서 크나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구설수에 시달려 보았을 것이고 참아야 할 일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겪기도 했을 것이다. 심한 경우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일도 있다.

한생각이라는 게 눈 한번 찌르고 내리뜨는 것 같이 별것 아니라고 여겨졌지만 면밀히 관찰해 보면 누구라도 한생각이 자기를 구명하여 처넣기도 하고 한생각이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운 사람, 마음에 못마땅한 상대가 있다고 해보자. 내가 상대를 볼 적마다 밉다는 생각을 일으키고(혹은 저절로 일어나고) 하는 것마다를 아니꼽게 생각한다면 그 상대는 날이 갈수록 미워지고 급기야는 서로의 관계를 파탄으로 끝내게 된다. 반면에 그를 볼 적마다 생각을 좋게 돌리고 그의 장점부터 보려 하고 혹은 나도 물질을 물렸을 때는 저와 같았지 하거나 그 나이에 나도 그랬을 거야, 혹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일거야 하고 생각을 돌린다면 미운은 좀 덜해지고 점차로 감정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나고 반문할 수 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제가 할 나뭇이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좀처럼 돌려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생각이 자기를 구명하여 밀어 넣을 수도,



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건지든지 밀어넣든지 그것은 제 할 말이로 전적으로 제 몫이다. 미운 상대의 탓도, 그의 몫도 아니다.

똑같은 사과 다섯개를 주었더니 어떤 사람은 좋은 것부터 차례로 먹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부터 먹었다고 하자. 한사람은 좋은 사과 다섯개를 먹었고 다른 한사람은 나쁜 사과 다섯개를 먹은 결과가 된다. 한생각 하기 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생각 한번 돌리면 예가 바로 극락이구나 하듯이 한생각 탁 트이게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통 대신에 즐거움이 오고 미움 대신에 사랑이 온다.

물 그곳에 어떤 물감을 떨어뜨리느냐에 따라 물의 색깔이 달라지듯이 말이다.

개미 구멍에 독이 터지는 수가 있다. 얼른 막아버리면 될 것을 반대로 자꾸 꾸서대면 마침내는 독을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 된다. 한생각 돌릴 줄 몰라서 자꾸만 집착한다면 나중엔 스스로 원치 않는 결과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게 그리 쉬운 일

이냐고 자기변호에 열중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구멍을 키우려거든 반대로 사랑의 붓물, 즐거움의 붓물이 터지게 하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하는 덕담이 있다. 일년 365일이 늘 잿바퀴 돌리듯이 같아서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에게 참으로 반가운 덕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는 덕담의 참 뜻은 순간순간에 한생각 바르게 내시오,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하는 충고에 있다.

이제의 생각이 오늘의 생각과 같고 내일의 생각이 오는 생각의 재판이라면 무슨 계주로 날마다 새로워지겠는가.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나 매일매일이 새날일 수 있지 늘 고정된 생각에서 사는데야 어떻게 새날일 수 있나. 매일매일이 묵은 날일 뿐이다.

안경을 바꿔봐라. 붉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천지가 다 붉고 푸른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누리가 다 푸르다.

협찬 : 조성찬 · 이형순